

신냉전 격화 세계 군비지출 사상최대

우크라 전쟁으로 안보 우려 고조 지난해 3.7% 늘어난 2900조원 美 1위...한국, 일본 제치고 9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안보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구촌에서 군사 장비나 시설에 들인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비 지출 1위 국가는 미국이었고 한국은 9위에 올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재단(SIPRI)이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세계 군비지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3.7% 상승한 2조2400억달러(약 2900조원)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2%에 해당한다.

국제평화재단은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기 전인 2021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라면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세계 군비지출 증가폭은 전년 대비 6.5%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계 군비지출은 2015년 이후 8년간 매년 증가했고 2013년과 비교하면 최근 10년 사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재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를 전세계 지출을 늘린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군비 지출 1위 국가는 미국이 8770억달

러(약 1170조원)로 최고였다. 중국(2920억달러 추정), 러시아(864억달러 추정), 인도(814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750억달러 추정)가 2~5위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영국(685억달러), 독일(558억달러), 프랑스(536억달러)가 6~8위였고 한국은 464억달러로 9위, 일본은 460억달러로 10위였다. 일본은 2021년 9위였다가 이번에 한국과 자리가 바뀌었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크라이나(440억달러)는 2021년 36위였다가 지난해 2월부터 전쟁을 치르면서 11위로 상승했다. 러시아도 2021년 5위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3위로 올라갔다.

한국의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2.5% 감소, 22년 연속 실질 증가 행진을 마감했다. 군비 지출이 감소한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다. 명목 기준으로 한국의 군사 예산은 2021년 대비 2.9% 증가했다.

유럽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유럽의 군비 지출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4800억달러로 냉전이 종식된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 국가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비 지출을 눈에 띄게 늘렸거나 앞으로 10년간 군비 지출을 증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군비 지출은 향후 수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급격하게 군비를 늘린 유럽 국가는 핀란드(36% 증가), 리투아니아(27% 증가), 스웨덴(12% 증가), 폴란드(11% 증가)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군비 지출을 전년보다 9.2%

늘렸다. 그러면서 지난해 러시아는 GDP의 4.1%를 군비에 썼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전년보다 640% 증가, 평화재단이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한 국가의 연간 군비 지출 증가폭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의 GDP 대비 군비는 2021년 3.2%에서 지난해 34%로 급증했다.

세계 1위 군비 지출국인 미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총 199억달러 규모 재정적 군사 지원을 했다. 이는 냉전 이후 단일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 중 최대지만, 미국 총군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미국은 세계 군비 지출의 39%를 차지하며, 2위인 중국의 3배를 군비에 썼다.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총 1조2320억달러로, 2021년보다 0.9%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년보다 4.2%, 2013년보다 63% 많은 군비를 지출하며 세계 2위 군비 지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의 군비 지출은 28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일본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460억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이는 1960년 이후 일본의 최대 군비 지출 규모다.

지난해 자국 GDP 대비 1.1%를 군비에 지출한 일본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 증가에 대응해 향후 10년간 군사력을 증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하는 등 앞으로 군비 지출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108주년 추모 행사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108주년을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수도 예레반에서 추모 촛불행진이 열리고 있다. 아르메니아 학살사건은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제국이 1915~1917년 자국에서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연합뉴스

러시아 "G7 수출 금지엔 흑해 곡물협정 중단"

메드베데프, 제재 논의 반발 경고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 등 제재 강화 방안 논의와 관련,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종료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후권으로 분류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며 "그것(전면 수출 금지)은 G7 국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여길 상품군에 대한 수출을 우리가 상호주의 차원에서 금지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상황(전면 수출 금지)에서는 곡물 거래를 포함해 G7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거론한 '곡물 거래 종료'는 전란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흑해 곡물협정'을 더는 연장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린다.

이 협정은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흑해 3개 항구에서 수출을 재개하는 내용이다.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막혔던 수출길을 열기 위해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하에 협상이 진행됐고 작년 7월 협정이 체결됐다.

러시아는 협정 체결 당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뿐 아니라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도 활성화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서방 국가들의 복잡한 대러시아 제재 구조 속에서 러시아산 비료 수출 등이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120일 기한이었던 협정은 작년 11월 현재로 연장됐다. /연합뉴스

러시아·CIS 한인 우크라 무기 지원 반대 성명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한인 단체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연해주·사할린한인회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한인회 등 5개 단체는 24일 성명에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권 국가 모임) 한인들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그리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경제·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지지하며, 묵묵히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접하며 가만히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한인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러시아와

CIS 한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을 뜻한다"고 경고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높아졌다.

5개 한인 단체는 "한국이 주변 강대국 사이 분쟁에 휘말려 국민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페루 전직 대통령 3명 한 교도소 나란히 복역

전직 대통령 3명이 동시에 한 교도소에 복역하는 불명예스런 일이 페루에서 벌어졌다.

페루 검찰은 23일(현지시간) 수백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알레한드로 톨레도(77) 페루 전 대통령을 미국에서 범죄인으로 인도받아 교도소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안다나통신과 일간지 엘코메르시오, AFP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톨레도 전 대통령은 18개월간의 예방적 구금 명령을 받고 수도 리마 외곽에 있는 바르바디오 교도소에 수감됐다.

바르바디오 교도소에는 예산 유용과 선거법 위반 등 죄로 복역 중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과 쿠데타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있다고 엘코메르시오는 전했다.

2001~2006년 집권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은 공공사업 계약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브라질 건설회사 오데브레시로부터 2000만 달러(약 266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페루 사법당국의 포위망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했던 그는 2019년 7월 미국에서 체포됐고, 법원에 항소까지 하며 범죄인 인도를 막아 보려다 결국 이날 범죄인 신분으로 귀국했다. /연합뉴스

수단 탈출 프랑스 수송기 탑승하는 민간인들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분쟁이 발생한 지 9일째 되는 23일(현지시간) 수도 하르툼의 프랑스 공군기지에서 프랑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민간인들이 대피를 위해 수단 인근 지부티로 향하는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